

거짓 혹은 대안적 사실

서경주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타타타’를 찾아서

김희갑 작곡·양인자 작사로 김국환이 노래한 ‘타타타’라는 대중가요가 있다. 1991년 말에 시작되어 이듬해 5월에 종영된 김수현 극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밭이 엄마’역으로 출연한 김혜자가 극중에서 흥얼거리면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어로 तथता(tathāta), 한자로는 진여(眞如),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혹은 ‘변치않는 본질’을 의미한다. 사물의 본질,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가사에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가진 제목을 붙인 경우는 흔치 않다.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한 치 앞도 모두 몰라”라며 인간의 운명에 대한 보편적 무명(無明)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비극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면서 남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아는 척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종교에서 이름과 형식은 다르지만 수행은 진아(眞我)를 찾아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 문사철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철학 역시 나를 찾아가고 내가 존재하며 바라보는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델포이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에는 147개의 경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 하나

가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 $\Sigma\alpha\upsilon\tau\acute{o}\nu\ \gamma\acute{o}\theta\eta$)”이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대화>의 파이드로스(Phaedrus)편에서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에게 설명한, 오지랖 넓게 신화를 비롯한 다른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룰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델포이의 신전에 새겨진 글이 가르친 것처럼 나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을 모르면서 나와 동떨어진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 나 자신을 모르면서 다른 문제들을 천착하는 것은 관점이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탐색은 모든 문제에 앞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다. 남을 알고 비판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한다.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늘 일치한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고민하던 문제는 2천 5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나를 아는 방법: IPT(Implicit Project Test)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진아를 알 수 있을까? 선불교에서는 그렇다고 가르친다. 고타마 싯타르타는 팔리어로 자신을 ‘탓타가타(Tathāgata)’로 불렀는데 그것은 모든 찰나적 현상을 초월한 영원불변의 존재를 의미한다. 한자로는 여래(如來)이다. 자아와 생각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완벽



하게 일치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존재에게는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곧 주관이다. 따라서 온갖 시시비비에서 자유롭다. 시(是)와 비(非)가 따로 있지 않다. 불이(不二)의 세계이며 불이의 존재이다. 그러나 보통 인간이 어디 그런가? 인간은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늘 번민한다. 생각과 말이, 마음과 행동이 번번이 따로 놀아 후회하고 갈등한다. 장좌불와(長坐不臥)를 불사하며 용맹정진해도 여래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명징한 세계에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인간은 달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며 찻집산중에 사는 자연인도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 인간은 명칭 자체가 내포하듯 이미 사회적 존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며 가족과 이웃이 있다. 유아독존은 언감생심이다. 인간은 찰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기억하며 학습하고 행동한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비롯한 뇌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심리를 실증적이고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규명하려는 노력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이 얽혀 있는 관계망 속에서 어떤 매커니즘으로 가치를 선택하고 지향하여 하나의 신념으로 공고히 하고 그 신념이 어떻게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다. 뇌과학이 신경 전달물질의 화학적, 전자기적 기전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인간의 사고체계는 과학으로 포섭하기 힘든 사회적인 요인도 포함한다. 인간의 학습, 행동, 인식, 기억 등은 여전히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통한 심리분석을 통해 더 실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임플리시(Project Implicit)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 1998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니 그린왈드(Tony Greenwald)와 하버드 대학의 마자린 바나지(Mahzarin Banaji), 버지니아 대학의 브라이언 노섹(Brian Nosek)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로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과 감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편향성을 갖게 되는지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로그인을 하고 자신의 편향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설문조사 형식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필자도 조사를 받아 보았는데 특정 집단에 대해 특별히 선호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진영논리가 팽배한 요즘 세태에서 이런 태도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회주의적 회색분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나 자신을 알려는 다양한 시도는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지부조화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이스크림은 새콤달콤 입맛을 당긴다. TV 건강프로그램에 의사가 나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충고한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방송내용은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은 쉽게 각

인되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그토록 자주 접하는 섬뜩한 금연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는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런 광고가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신념에 영향을 주어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담배는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다.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과 욕망에 거슬리지 않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연 광고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다. 불편한 정보는 쉽게 무시하고 왜곡하며 잊어버린다. 정확한 정보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불편한 심리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매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쉽게 잊는다. 정보원을 망각하는 속도는 개개인의 취향이나 신념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의 행동양식이나 정치적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는 유력하고 유명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CNN, 뉴욕 타임스 같이 권위와 명망이 있는 매체에 올라온 기사를 인용할 때는 대부분 자신의 견해와 일치되거나 비슷한 정보를 언급할 때이며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거나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대한 비판은 ‘지라시’를 인용한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조작이나 음모이기를 바라고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진실이기를 원한다. 진실이 신념을 배신할 때 우리는 신념을 교정하기보다는 진실을 외면한다. 현실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쪽을 택한다.

이런 현상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는 1957년에 출판한 <인지부조화론(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감정, 생각, 가치를 가진 개인 혹은 자신의 신념, 견해, 가치와 다른 정보를 접한 개인이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망각하고 왜곡하며 핑계거리를 찾는다. 인지부조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지부조화가 지속되면 불안과 당황, 후회, 분노에 사로잡혀 자존감을 잃고 아노미에 빠지기도 한다.

궤변 그리고 이중사고

사마천의 <사기> 맹자순경열전에는 조나라 사람 공손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백가쟁명 시대 공손룡은 중국의 궤변론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명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견백동이(堅白同異)를 주장하였다. 즉 눈으로 보면 돌이 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단단하다는 것은 알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보면 돌의 단단한 물성은 알 수 있지만 희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공손룡은 그러므로 견고한 흰 돌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법을 펼친다.

그가 백마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 “말은 통행이 금지됐다”고 수비대가 제지하고 나섰다. 공손룡은 흰색을 보여주며 “이것이 색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수비대원이 답한다. “무색, 즉 색이 아니다” 공손룡은 “흰색이 색이 아니면 흰말은 말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간다. 내러티브는 다르지만 논리는 그리스 시대 궤변론자의 그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명가가 주장한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는 일찍이 움직여본 적이 없다”(飛鳥之影 未嘗動也)는 것은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는 고대 그리스의 궤변론자 제논의 패러독스와 크게 차이가 없다.

전국시대 제나라에는 추연이라는 당대의 경험론자가 있었다. 추연은 현란한 변설을 배경하고 경험에 기반한 유세를 펼쳤는데 공손룡의 궤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의 뜻을 분명히 하고 사물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의 언어로 좀 쉽게 해석하자면 팩트체크에 기반한 논설을 주장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궤변론자들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소 엇갈렸지만 플라톤은 “궤변은 진실의 그림자이며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식적 흥내내기에 서 비롯된 말장난 일색의 자가당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조지 오웰이 1949년 발표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사회를 그린 소설 〈1984〉는 작가의 예언자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는 소설의 무대가 되는 전체주의적 초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사용되는 신언어(newspeak)로 더블씹크(doublethink), 즉 이중사고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소설의 화자는 이중사고를 이렇게 정의한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 온전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잘 짜여진 거짓말을 하는 것, 무효화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에는 논리로 맞서는 것, 도덕성을 내세우며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망각하고 필요한 순간에 다시 기억해내고 즉각 잊어버리는 것 ...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중사고’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중사고를 사용해야만 한다”

궤변은 이중사고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상식과 직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럴듯하다. 지난 8월 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캘리언 콘웨이는 2017년 1월 22일 NBC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인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나와 백악관 “공보비서관인 셀 스파이서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진행자인 척 토드가 질문하자 “대안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자 척 토드는 “대안적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언론에서는 ‘대안적 사실’을 오웰이 말한 ‘더블씽크’에 비유했다. 덕분에 이 용어가 등장한 소설 <1984>는 전년에 비해 94배나 판매부수가 늘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다. 스티븐 스피버그는 자신이 제작 감독한 영화 <The Post>가 전미비평가협회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영화는 “우리는 대안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 대안적 사실의 허구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연일 난무하는 진영논리에 갇힌 요란한 언설들은 인지부조화 엔데믹이 우리 사회에도 궤변과 이중사고를 만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란한 수사와 변설은 진실의 장식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다. 진실은 단순명료하다. 움베르트 에코의 말처럼 “언론 자유는 수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수사의 설득력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말이 폭력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대안적 사실에는 ‘대안적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손가락만 까다 해도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1세기에도 궤변론자들이 음험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배회하며 ‘대안적 사실’들을 토해내고 있다. 더블씽크(doublethink)와 더블비전(doublevision)의 시대에 진실은 흐릿하기만 하다.

끝으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시티들 사관학교(Citadel Military Academy) 생도들의 기도문 가운데 한 대목이다. “쉬운 불의 대신에 어려운 정의를 택하게 하소서. 온전한 진실을 얻을 수 있을 때, 절반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사관생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언론인들에게 어울리는 기도문 같아 사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덧붙인다. 